국토연구 제77권(2013. 6): pp17~34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Planning Components and Priority of Women-Friendly Housing Complex

박태원
Park Taewon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제1저자)
Prof., Dept. of Urban Planning &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
(Primary Author)
(realestate@kw.ac.kr)

천현숙
Hyeonsook Chun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hchun@krihs.re.kr)

송향숙
Song Hyangsook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교신저자)
Ph.D. Candidate, Dept. of Urban Planning &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
(Corresponding Author)
(bdshs@kw.ac.kr)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Ⅱ. 선행연구 검토
1. 연구동향 분석

Ⅲ. 실증분석
1. 여성친화 구성요소의 탐색적 도출
2.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 도출
3.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 우선순위 설정

Ⅳ. 결론

※ 본 논문은 2012년 국토연구원 협동연구과제인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념모델 연구: 주택단지 및 근린범위를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재작성하였음.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공간에서 여성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고,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용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 관념들과 관습, 유교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제 등은 사회 · 문화적 배경이 되어 여성을 고착화된 공간 사용자로 머물게 하였으며(송향숙 · 박태원. 2011: 53),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족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도시 발전과 주거지 개발에 있어서도 여성은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로서 위치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된 측면이 있다. 1980년대 후반[1]에 이르러서야 여성을 젠더 관점의 평등한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가시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혹은 중립적(gender neutral)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위해서 여성의 역할과 사회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시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였으며, 지금까지 남성 위주로 주도되어 왔던 도시공간을 성인지적 관점의 수직적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도시공간 개선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교육을 통한 성 주류화의 지향, 여성의 정책 참여를 통한 여성정책의 개선, 조화로운 도심 커뮤니티 구성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는 도시의 여성친화적 공간 변화를 통해 여성의 수평적 공간 지위를 갖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차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위 주거의 경우,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은숙 외(2003)에 의하면 주거 공간에서 여성은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동안의 단위 주거는 공급자 위주의 계획으로 외부와의 단절과 분리를 만들어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을 바라보는 기존 연구들 역시 '페미니즘적 도시연구(Feminism Urban Studies)'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사용자로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적인 문제를 도시공간으로 확대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가 중심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도외시 되어 왔던, 주거단지의 미시적 실행 연구로서 젠더 중립성을 지향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적 주거유형인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여성이 느끼는 불편한 점과 필요로 하는 시설을 탐색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계획요소와 우선순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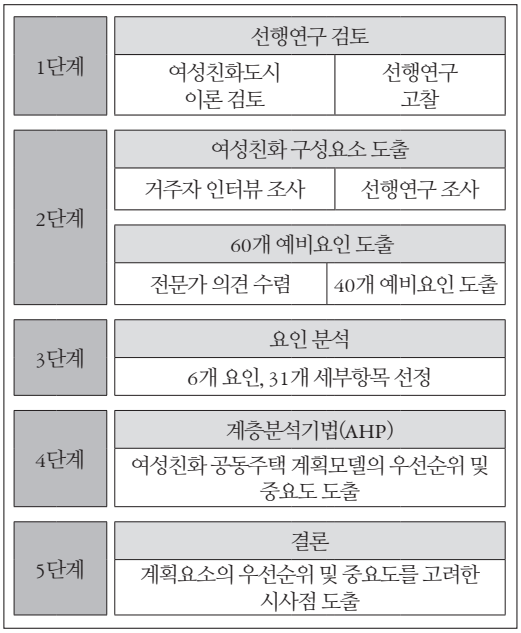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질적연구의 방법으로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그에 관련한 선행연구 및 이론을 검토하여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토대로 주거단지와의 연계적 일관성을 찾고자 하였다. 양적연구의 방법으로는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법(Depth Interview)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면접기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통계패

1) 1988년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회(IULA)에서 성평등성에 대한 여성선언이 채택되었음.

www.kci.go.kr

표 1 _ 연구의 흐름



키지는 SPSS18.0과 Expert Choice 2000을 사용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연구동향 분석

근대적 도시공간은 모더니즘[2]을 바탕으로 여성주의[3] 시각이 더하여 발달되어 왔다. 도시의 발달은 여성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여성을 배려의 대상, 복지적 대상, 부분적이고 치유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4]의 패러다임은 도시 사용자의 수평적 지위를 가진 여성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여성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시 사용자로서의 여성에 관한 연구는 1978년 발간된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의 특집호 'Woman and The City'와 페미니스트 저널 *Signs*의 '1980년 특집호'가 최초의 도시공간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조감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김흥순. 2007). 이후 도시공간의 공적, 사적 공간, 주택, 경제발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여성주의(feminism) 입장에서의 계획에 관한 연구가 발전되어 왔다(Susan and Lisa. 2005).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성과 도시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었다. 여성에 관한 연구로는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김지경. 20002) 라이프스타일의 연구(김은주. 2010), 자본과 공간 불평등성(정갑희. 2005)과 같은 사회 · 경제적 측면과 여성 정책적 측면(강혜련. 2002; 마경희. 2003; 문미경 외. 2006), 여성의 주거공간과 도시, 공간구조, 공간의 설계, 디자인에 대한 도시계획 및 설계적 측면(손세관 외. 2000; 김엘림 외. 2001; 최병숙 외. 2009; 정희선 외. 2009)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1) 사회 · 경제적 측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사회체제로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념적 인식의 견해와 사회적으로 내면화되어 온 남성 위주의 체제로 인해 차별이

2) 개인화, 세속화, 산업화, 문화적 분화, 편의주의(expediency), 도시화, 관료제, 합리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념으로 막스 베버로부터 개념화되었으며, 대량생산과 획일화된 중심체계와 전통, 공동체주의의 해체를 의미하기도 함.

3) 성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 · 정치 · 경제적 상황을 여성의 권리와 이익으로 이끌어내는 사회 이론임.

4)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한 패러다임. 정책과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이 조건의 차이와 사회 · 경제적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정책 시스템의 문화를 보다 여성친화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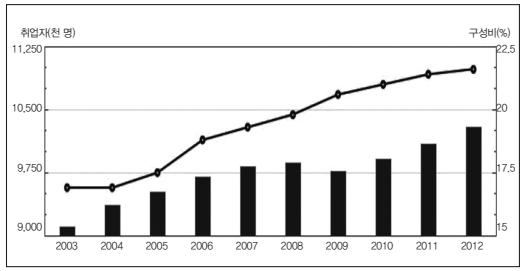
www.kci.go.kr

표 2 _ 선행연구 검토

분류	연구자	내용
사회 · 경제적 측면	김지경(2002)	성차별에 대한 집단 간 실험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해 느끼는 사회적 정체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김은주(2010)	서울 및 경기권 중심의 미혼인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VALS를 사용하여 라이프 스타일을 유형화하여 유형에 따른 특징을 분석
	정갑희(2005)	자본에 의한 여성 공간은 분절을 갖게 됨
정책적 측면	강혜련(2002)	울산광역시에서 실시된 여성정책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통해 여성정책이 실제화될 수 있어야 함을 분석
	문미경 외 (2006)	여성참여 확대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내용 명확성, 필요성 등의 분석을 통한 여성 참여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
	마경희(2003)	한국 사회정책 체제의 급여체계를 통한 젠더 계층화 논리의 분석
도시계획 및 설계적 측면	손세관 · 김경순 (2000)	여성들이 주거 내에서의 요구 및 역할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여성 고객이 주거건축의 설계과정에 끼친 영향을 주택설계 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
	김엘림 · 김혜영 (2001)	남녀 평등도시 모델 개발을 위해 사례와 정책을 분석하여, 남녀 평등도시의 필요성과 구성, 방법 및 정책적 절차를 분석
	최병숙 · 박정아 (2009)	1970년대부터 공동주택 공간구조를 분석하여 여성의 활동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공간 구조의 변화를 분석
	정희선 · 김문덕 (2009)	서울 및 경기지역의 여성 관련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공간의 설계와 디자인에 대해 여성의 취향, 감성이 반영된 사례를 조사하여 여성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제기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IMF 금융위기 이후 여성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여성 고학력자 및 주요직에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관련 상품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거, 여성의 고학력이 결혼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로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겸비한 독신여성의 증가는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게 되었다. 2006년 10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여성이 상거래를 좌지우지하는 '위미노믹스(womenomics)'[5]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는 '알파걸'[6], 직장에서는 '골드미스', 결혼 후 나이 들면 '루비족',[7] '어라운드 포티'[8] 등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여성들이 등장함으로써 한국형 위미노

그림 1 _ 여성 전문 · 관리직 종사자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2013.

믹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가정 내에서도 여성 즉, 엄마와 아내로서 가정의 소비습관을 견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남성이 구매 결정권을 쥐고 있었으나, 아내의 결정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서은영. 2009). 이는 상품의 소비, 편의주의

5) '위미노믹스'는 2006년 10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여성들의 구매력이 향상됨에 따라 생겨난 여성경제학을뜻하는 신조어임.

6) 학업, 운동,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남자에 뒤지지 않는 엘리트 소녀.

7) Refresh(상쾌한), Uncommon(평범하지 않은), Beautiful(아름다운), Young(젊은)의 앞 글자를 딴 용어.

8) Around 40's로 경제적 여유와 소비력을 가진 40대.

www.kci.go.kr

증대, 삶의 질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수요를 증대시키며, 생활 관리자의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에게 공간적 요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정책적 측면

1983년 국무총리 정책 자문기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정부기구의 명칭에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유영주. 2006: 58). 물론 그 이전에도 여성을 위한 정책적 기구는 있었지만 전후 미망인과 윤락녀, 계몽기구, 근로여성 권익보호 등이 대부분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준하는 보호차원의 기구였다. 젠더 평등적 고민은 1982년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비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되었고, 1986년 국가장기발전 구상 여성 부문 포함, 1987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여성 부문 포함, 1987년 남녀차별개선지침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였다. 이후로는 6공화국 출범과 함께 여성문제를 정책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에는 전국 169개 시 · 군에 가정복지과를 설치하고 「모자보건법」 제정, 「가족법」 개정 등 여성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헌법 제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정책적 실현은 복지적, 부분적 사업에 국한된 가운데 성 주류화의 정신을 반영한 것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그 후 1998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최초의 공식적 여성기구로 출범하면서 2001년에는 여성부가 정부 부처로 출범하게 되었다. 여성을 위한 정책의 실현은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세계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사회적 주체로 기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고, 성 주류화의 정책 도구로는 성별영향평가를 2004년부터 실행하게 되었다.

표 3 _ 여성정책의 변화

연도	기관	법 제정
1983	여성정책심의위원회	–
1985	–	여성발전기본계획수립
1986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여성 부문 포함
1987	–	남녀차별개선지침
1989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91	전국 169개 시 · 군 가정복지과 설치	「모자보건법」, 「가족법」 수립
1993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
1995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98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1999	중앙정부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설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
2001	여성부	–
2004	–	성별영향평가
2009	여성친화도시 선정	–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였고, 2012년 현재 총 30개의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3) 도시계획 및 설계적 측면

과거의 도시는 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뿐만 아니라 건물 형태의 미적 · 사회적 가치, 건물을 만드는 과정, 건물의 소유와 사용까지도 남성 중심이었으며, 여성의 시각으로 여겨왔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이 배제되는 현상을 만들어 왔다(장미혜. 2009: 35). 그러나 근대도시에서 현대도시로의 변화는 여성에게 공간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도시 및 주거공간에 다양성과 다원성을 강화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시

www.kci.go.kr

설 사용자인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복합시설이나 생활 관리자로서 여성 의견이 접목된 주거단지 디자인, 여성 고객이 많이 찾는 쇼핑시설 등 여성친화성을 강화한 시설이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육아 시설과 생활밀접 시설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배치와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공간의 계획, 설계, 배치에 여성친화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 및 건축에 있어서 계획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도시기반시설, 건축 등 단계적 실행계획을 위하여 2004년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9]지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사례로는 김포한강신도시(2006), 대구혁신도시(2007), 광교신도시(2008),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유비쿼터스도시 구축사업(2009)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참여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_ 기초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참여 현황주)

구분	참여 기초지자체 수	과제 수
서울	25	179(168)
부산	16	211(178)
대구	8	119(80)
인천	10	152(75)
광주	5	59(61)
대전	5	89(122)
울산	5	48(35)
경기	31	184(153)
강원	18	97(113)
충북	12	106(85)
충남	16	111(71)
전북	14	96(70)
전남	22	112(92)
경북	23	200(70)
경남	20	101(101)
제주	2	16(11)
전체	230	1,184(1,485)

주: 2010년도 기초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 수로 230개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여 총 1,184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음. 괄호는 2009년도 수행과제 수임(여성가족부. 2011: 15).

III. 실증분석

1. 여성친화 구성요소의 탐색적 도출

1) 사례 대상지 및 설문조사

본 논문의 연구 대상지는 서울시로 한정하였으며, 권역 내 공동주택 단지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로서의 여성의 의견을 수렴, 여성친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구성요소는 기존의 상향식 접근이 아닌 하향식 접근방법이자 탐색적 접근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은 할당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여성친화 구성요소의 탐색에 있어서 균형 있는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서울시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별 소득에 의한 각 권역별 지역으로 은평구, 노원구, 구로구, 강동구 4개의 구를 선정하였다. 연구지역의 선정은 중산층 연구[10]에 바탕을 두었으며, 선정된 지역은 84m² 내외 면적 3억~5억 원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을 추정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에 있어서 주거의 비율이 낮은 도심부와 편중된 소득구조를 지닌

9)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 · 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여성가족부. 2011: 1).

10) 중산층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OECD는 일정비율 접근법인 상대적인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도 OECD와 같이 소득분배지표를 활용하여 중위 소득 50~150%로 적용하고 있음. 장세훈(2007)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산층의 평균 주택가격은 4억 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주거면적은 84m² 내외로 나타났음.

www.kci.go.kr

지역을 배제하였다. 선택된 4개의 구에 대하여 입주 시기, 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총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단지를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 노원구 상계동 벽산아파트, 구로구 주공1차아파트, 은평구 미성아파트 4개 공동주택으로 선정하였다.

2) 거주자 인터뷰 조사 개요

여성친화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인터뷰 조사는 각 권역별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1일에서 10일까지 각 대상지별 20명씩 총 80명의 공동주택 거주 여성에게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응답에 대하여 응답 내용의 자료화, 체계적 정리 및 기록을 위하여 서면 형식을 차용하여 기록하였다.

3)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터뷰 조사 실시에 있어서 여성 계층을 6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집단에 내재되어있는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여성 집단의 분류 기준 선택에 있어서 직장의 유무와 결혼 여부는 여성의 라이프사이클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생활에 있어 체감하는 불편함과 필요시설 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표 5〉와 같이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4) 인터뷰 조사 응답 결과

인터뷰 조사 결과 여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의 경우 CCTV, 조명시설, 휴게공간 등 여성의 안전과 휴식 관련 시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밖에 극장, 도시관, 키즈카페 등이 언급되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항목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며, 여성친화적 주택단지 조성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터뷰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지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하향식 접근 방법에 의해 도출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며,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지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60개의 1차 예비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예비지표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지표의 위계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항목 통합, 의미의 명확화, 변수의 수를 조절하여 40개의 최종 예비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5 _ 인터뷰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전체	강동	구로	노원	은평
연령	20대		12	6	3	4	5
	30대		21	6	5	5	4
	40대		29	4	7	6	6
	50대 이상		18	4	5	5	5
	총합		80	20	20	20	20
소속집단	직장이 있는	미혼	13	4	3	4	3
		기혼	16	2	5	2	3
	직장 경험이 있는	미혼	11	3	4	5	2
		기혼	14	4	2	3	5
	직장 경험이 없는	미혼	9	4	3	3	3
		기혼	17	3	3	3	4
	총합		80	20	20	20	20
가계 월 소득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4	4	3	3	4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4	6	5	7	7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33	7	6	8	6
	500만 원 이상		9	3	4	2	3
	총합		80	20	20	20	20

www.kci.go.kr

표 6 _ 인터뷰 조사 결과 도출된 최종 예비요인

최종 예비요인	
1	가로등 및 지하 주차장 조명 밝기 조절
2	공원과 주택의 녹지네트워크 조성
3	꽃길 등 걷고 싶은 거리, 산책로 조성
4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을 갖춘 건축물
5	단지 내 공공미술작품 설치
6	단지 내 공동 텃밭 설치
7	단지 내 교육시설 운영
8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9	단지 내 조깅로 등 운동구역 확보
10	단지경관 스카이라인 계획
11	무인 택배보관 공간 확보
12	방범취약지역 내 CCTV 설치
13	방음시설 설치
14	방학 중 공동 급식시설 설치 운영
15	방향 안내 시스템(Sign System)
16	벤치, 정자 등 휴식, 휴게공간 조성
17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보차분리
18	사각지대의 공원화(범죄예방)
19	쓰레기 자동 집하 시스템(분리수거시스템)
20	아이들 놀이공간 안전장비 설치(CCTV)
21	어린이 공원 및 체험공간 조성
22	어린이 도서관 설치 운영
23	에너지 절감형 단지(자연에너지 활용 등)
24	엘리베이터 이용 위협감 해소
25	문화 특화거리 조성
26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
27	여성 화장실 확대 설치
28	커뮤니티 휴게시설, 쉼터 설치
29	정보 공유 및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센터
30	넓은 주차공간 확보
31	사회 진출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교육센터
32	여성 편의를 고려한 주택 및 단지 구조
33	여성중심의 체육시설 설치
34	연못, 분수대 등 수변시설(공간) 확보
35	육아 · 보육시설 확대 설치
36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단지 조성
37	주택단지 인근 위험요소 통제
38	차가 없는 지상공간 확보
39	택배기사 신분 확인을 통한 보안 확보
40	홈 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기술 도입

2.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 도출

1) 설문조사 개요

요인 분석을 통한 계획요소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 선정은 예비지표 선정을 위한 F.G.I와 동일한 조사권역 내 공동주택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 7〉과 같이 직장의 유무와 결혼 여부에 따라 소속집단을 직장이 있는 미혼여성, 직장 경험이 있는 미혼여성, 직장 경험이 없는 미혼여성, 직장이 있는 기혼여성, 직장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직장 경험이 없는 기혼여성 총 6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각 지역별 80부씩 총 320부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예비지표를 기준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대면 접촉을 통한 직접방문과 e-mail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일관된 설문 표기 또는 누락 등의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300부의 응답결과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기혼여성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 구분에 있어서는 30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소득의 경우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계층에 응답을 유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직장경험이 있는 30~40대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여성친화 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설문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www.kci.go.kr

표 7 _ 요인분석 설문 응답자 개요

구분			전체	유효 부수	유효 백분율(%)
연령	20대		72	67	22
	30대		94	85	28
	40대		87	84	28
	50대 이상		67	64	21
소속 집단	직장경험 있지만 현재 직장이 없는	기혼	49	45	15
		미혼	54	50	17
	직장이 있는	기혼	58	57	19
		미혼	53	49	16
	직장 경험이 없는	기혼	56	52	17
		미혼	50	47	16
가계 월 소득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77	72	24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01	96	32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95	87	29
	500만 원 이상		47	45	15
총합			320	300	100

2)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

본 논문에서 사용된 예비지표에 대해 인자구조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 방법 중 베리맥스(Varimax)회전을 이용하였다. 요인 추출은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요인구조를 중심으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사용하여 신뢰도 검정을 하였다. 요인분석 적합성 검정 결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1 이하로 나타났으며, KMO 측도 값이 0.861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크론바하 알파 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방향 안내 시스템, 공원과 주택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조성, 단지 내 교육시설 운영,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무인택배 보관 공간 확보, 방음시설 설치 항목은 요인 부하량 미달로 인해 타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제거하였다.

3) 요인분석 결과의 해석

요인분석 결과 총 6개의 요인으로 수렴하였으며, 각각 안전성, 육아친화성, 자아실현성, 생활편의성, 심미경관성, 보행편의성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에 포함된 세부항목은 〈표 6〉과 같다. 세부요인으로는 안전성에 있어서 자연감시, 방문자의 신분확인, 보행 및 주차공간의 조명, 단지 내 공원의 사각지대 예방, 기타 범죄우려지역에 CCTV 설치 등이 있으며, 육아친화성은 보육과 육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시설, 교육과 급식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었다. 자아실현성으로 명명한 세부요인으로는 거주 여성들의 커뮤니티와 휴게시설, 텃밭 등을 이용한 주민 간 교류,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문화소비를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되어 익명성을 요구하는 공동주택이라도 주민 간 커뮤니티를 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생활편의성의 세부요인은 편의성을 강조한 유비쿼터스 시설과 단지구조 등을 통한 동선의 편리함, 에너지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대표한다. 심미경관성은 단지 내 자연친화 시설과 예술품 등 심리 · 시각 · 문화 · 친환경을 아우르는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다. 보행편의성은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행로와 보행 휴게시설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이용자의 여성친화 요인들은 여성만을 위한 시설의 집합이기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의 생활과 일을 양립하는 사회일원으로서의 요구(needs)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여성친화 주거단지가 거주자 친화의 성격도 내재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www.kci.go.kr

표 8 _ 요인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안전성	방범취약지역 내 CCTV 설치	.765	.159	.224	.120	.045	−.002
	사각지대의 공원화(범죄 예방)	.763	.361	−.040	.110	.051	.181
	가로등 및 지하 주차장 조명 밝기 조절	.736	.038	.189	.292	.035	.223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단지 조성	.728	.000	.145	.104	.195	.145
	택배기사 신분 확인을 통한 보안 확보	.686	.407	.044	.174	.214	.022
	엘리베이터 위협감 해소를 위한 시스템 설치	.651	.202	.054	.223	−.015	.233
육아 친화성	어린이 도서관 설치 운영	.185	.866	−.044	−.036	.116	.097
	아이들 놀이공간 안전장비 설치(CCTV)	.101	.810	.078	−.007	.142	.178
	어린이 공원 및 체험공간 조성	.210	.810	.029	.077	.120	.141
	방학 중 공동 급식시설 설치 운영	.077	.711	.104	.327	−.009	.163
	주택단지 인근 위험요소 통제	.262	.645	.132	.470	.048	−.073
	육아 · 보육시설 확대 설치	.495	.558	−.135	.231	.167	.103
자아 실현성	단지 내 공동 텃밭 설치	.034	.087	.774	.119	.081	.175
	여성중심의 체육시설 및 공간 조성	.092	.101	.745	.397	.186	−.009
	커뮤니티 휴게시설, 쉼터 설치	−.023	−.172	.738	.305	.158	.093
	사회진출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교육센터	.412	.170	.706	−.088	.181	.133
	문화 특화거리 조성	.182	−.098	.661	.292	.372	.088
	정보 공유 및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센터 조성	.562	.106	.585	.083	.132	.084
생활 편의성	에너지 절감형 단지(자연에너지 활용 및 재활용)	.294	.023	.183	.719	−.010	.062
	여성을 위한 넓은 주차공간 확보	.288	.193	.044	.673	.293	.236
	쓰레기 자동 집하 시스템(자동분리수거시스템)	.188	.175	.189	.592	.415	.165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기술 도입	.000	.192	.339	.585	.033	.073
	생활동선을 고려한 주택 및 단지구조 배치	.324	.071	.338	.566	.151	.135
심미 경관성	연못, 분수대 등 수변시설(공간) 확보	.082	.076	.148	.227	.784	.115
	꽃길 등 걷고 싶은 거리, 산책로 조성	.120	.063	.316	.056	.760	−.020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을 갖춘 건축물	.010	.391	.157	.124	.714	.003
	단지 내 공공미술작품 설치	.390	.048	.107	−.049	.604	.435
보행 쾌적성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조성	.133	.219	.390	−.065	.042	.691
	차가 없는 지상공간 확보	.280	.191	−.001	.343	.048	.630
	벤치, 정자 등 휴식, 휴게공간 조성	.200	.185	.257	.397	.209	.575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보차분리	.419	.244	.070	.370	.141	.537

3.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 우선순위 설정

1) 계층분석 기본구조 설정

계층분석기법에 있어 계층구조의 위계 및 항목 간 독립성 확보는 객관적 기본 계층구조의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은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신뢰성 있는 요인과 요인별 세부항목을 활용하여 계층분석기법의 계층구조로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본 계층구조 선정에 있어 계획가 등 공급자 관점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계획요인 선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활

www.kci.go.kr

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만을 계획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 자료로서의 활용을 위한 논리적 비약 및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및 설계, 건축, 단지계획, 조경, 사회학, 여성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표의 위계, 지표의 범위에 따른 의미를 수정 · 보완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은 6개 대항목과 32개의 세부항목으로 기본 계층구조를 선정하였다.

2) 설문조사 개요

다양한 집단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수의 계층이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 대안 및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계층분석기법의 특징에 따라 이용자 그룹, 일반인 그룹, 전문가 그룹으로 세 가지 집단을 선정하여 각 집단별 20부씩 총 6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그룹은 4개 공동주택단지 3년 이상 거주 여성 주민으로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대상으로 본 논문의 중심이 된 집단이며, 일반인 그룹은 이용자 그룹과 대별되는 입장을 취하는 남성 및 일반 여성을 포함하는 무차별적 그룹 집단으로 3년 이상 공동주택 거주자 남녀 각각 10명씩 선정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건축, 도시계획, 조경, 부동산, 사회학 및 여성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 전문가, 연구원(박사급), 각 분야별 5명씩 총 20명을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구성된 3개 그룹의 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여성친화적 공동주택 계획모델 요소 선정에 있어서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AHP 설문의 내용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3) 집단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AHP기법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설문 결과의 오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n)을 산출한다. 또한, 일관성 지수의 설정은 비교 대상의 수와 유의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Dodd et al. 1993)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0.1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합리적인(reasonable) 평가, 0.2 이하일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는(tolerable) 평가라고 하였다(Saaty. 1983). 본 논문에는 전문가 집단 외 이용자 그룹 및 일반인 그룹 등의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관성 지수를 0.2 이하로 설정하였다. 개별 응답자의 일관성 지수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 그룹

그림 2 _ 기본 계층구조 모형

Goal – 목표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 선정					
Level1 – 대항목					
안전성	육아친화성	자아실현성	심미경관성	생활편의성	보행쾌적성
Level2 – 세부항목					
CCTV 설치	보육시설	단지 내 고용시설	다양한 스카이라인	대용량 주차공간	보차분리
자연적 감시	어린이 체험시설	여성커뮤니티 시설	단지 내 환경 미술품	쓰레기 분류시스템	Car-free 외부공간
적절한 조명	공동 탁아시설	단지 내 텃밭	풍부한 조경	단지 내 단축동선	Sign system
				게스트 하우스	보행로 마감재
주동출입 시스템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	여성 배려 체육시설	변화 있는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단지	선형 녹색 보행축
단지 내 통제	안전한 어린이 공원	로컬 스토어	변화 있는 단지 배치	유비쿼터스 단지	대중교통 접근성

www.kci.go.kr

표 9 _ 집단별 최종 분석 대상 구분

구 분	조사대상	일관성지수 ≧0.2	분석 대상
이용자 그룹	20	4	16
일반인 그룹	20	5	15
전문가 그룹	20	3	17
합계	60	12	48

4명, 일반인 그룹 5명, 전문가 그룹 3명의 설문을 제외한 총 48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관성 비율 허용범위 내 대상자 48명을 대상으로 각 그룹의 일관성 비율 검토 결과 이용자 그룹 0.03, 일반인 그룹 0.05, 전문가 그룹 0.02로 나타났고, 전체집단에 대한 일관성 비율은 0.0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나타났으며,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각 집단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안전성 항목은 모든 집단이 동일하게 최우선 순위로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친화성의 항목은 이용자 그룹에서 2순위로 나타났으나, 일반인 그룹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육아 및 보육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자아실현성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성 집단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라 활동 범위의 확대 및 여가 시간 활용을 통한 성취감 획득 등을 이용자 그룹은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나, 그 외의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생활편의성 항목의 경우 개별 그룹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반인 그룹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2순위, 이용자 그룹에서는 5순위로 측정되어 가장 대조적 결과를 지닌 항목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단지 이용자인 여성이 가정 내 머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신체적 약자로서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많은 가중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의미의 생활에서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의 항목이며, 여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일반적 관념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외 보행쾌적성, 심미경관성 등은 모든 집단에서 비슷한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룹 간의 차이보다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상당 부분 작용했으며,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육아친화성과 자아실현성이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해석하였다.

표 10 _ 집단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Level 1 대항목	이용자 그룹		일반인 그룹		전문가 그룹	
	Local 값	순위	Local값	순위	Local값	순위
안전성	.305	1	.302	1	.285	1
육아친화성	.235	2	.143	4	.177	3
자아실현성	.165	3	.061	6	.122	5
보행쾌적성	.149	4	.195	3	.159	4
생활편의성	.095	5	.199	2	.211	2
심미경관성	.052	6	.100	5	.046	6
일관성비율	.03		.05		.02	

4) 집단별 계획요소 중요도 및 우선순위

사용자 그룹, 일반인 그룹, 전문가 그룹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비교한 결과 안전성, 육아친화성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보행쾌적성, 생활편의성, 자아실현성, 심미경관성은 다소 미미한 중요도 차이가 나타났다. 〈표 11〉과 같이 6개 대항목과 32개 세부항목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별 일반화 요소들의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안전성의 경우, 세부항목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부를 안전지대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길 바라고 있으

www.kci.go.kr

며, 기계적 장치보다는 자연적 감시나 외부인의 적절한 통제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친화적 공동주택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단지 내 통제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공동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인 여성 집단의 경우, 남성이 포함된 일반인 집단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어 여성친화적 주거단지를 위해서

표 11 _ 여성친화형 공동주택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 결과(집단별)

Level 1 대항목	이용자		일반인		전문가		Level 2 세부항목	이용자		일반인		전문가	
	중요도	일관성 비율	중요도	일관성 비율	중요도	일관성 비율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안전성	.309	.02	.292	.02	.298	.01	단지 내 통제	.348	1	.349	1	.343	1
							자연적 감시	.192	3	.270	2	.255	2
							적절한 조명	.141	4	.198	3	.184	3
							CCTV 설치	.227	2	.116	4	.137	4
							주동출입시스템	.091	5	.067	5	.081	5
육아 친화성	.212	.03	.242	.06	.210	.01	공동 탁아시설	.334	1	.353	1	.312	1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177	3	.272	2	.250	2
							보육시설	.227	2	.115	4	.193	3
							어린이 체험시설	.161	4	.082	5	.143	4
							안전한 어린이공원	.100	5	.178	3	.101	5
보행 쾌적성	.146	.01	.183	.02	.131	.01	선형 녹색 보행축	.290	1	.317	1	.303	1
							보행로 마감재	.258	2	.246	2	.249	2
							대중교통 접근성	.089	5	.174	3	.120	4
							Car-free 외부공간	.186	3	.075	5	.088	5
							보차분리	.125	4	.129	4	.055	6
							Sign system	.052	6	.059	6	.184	3
생활 편의성	.065	.03	.132	.03	.212	.02	대용량 주차공간	.286	1	.318	1	.310	1
							에너지 절감형 단지	.222	2	.227	2	.251	2
							단지 내 단축동선	.101	5	.176	3	.189	3
							게스트 하우스	.148	4	.099	5	.132	4
							쓰레기 분류시스템	.185	3	.128	4	.076	5
							유비쿼터스 단지	.058	6	.052	6	.042	6
자아 실현성	.182	.01	.064	.02	.075	.02	단지 내 텃밭	.242	2	.269	2	.268	2
							여성 배려 체육시설	.148	4	.320	1	.320	1
							여성 커뮤니티 시설	.317	1	.190	3	.202	3
							단지 내 고용시설	.200	3	.134	4	.139	4
							로컬 스토어	.092	5	.087	5	.071	5
심미 경관성	.085	.02	.088	.05	.075	.02	단지 내 환경 미술품	.327	1	.279	2	.300	1
							변화 있는 건축물	.233	2	.319	1	.273	2
							다양한 스카이라인	.145	4	.177	3	.201	3
							풍부한 조경	.193	3	.129	4	.144	4
							변화 있는 단지 배치	.102	5	.095	5	.082	5

www.kci.go.kr

는 안전성과 관련된 계획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육아친화성은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며, 탁아와 보육시설에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여성 집단은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2순위로서, 남성이 포함된 일반인 그룹이나 전문가 집단의 3순위보다 높았다. 보행쾌적성은 집단 간 순위가 1, 2순위는 유사하나 여성 집단에서 자동차의 방해가 없는 외부공간에 대한 우선순위가 3순위로 나타났다.

생활편의성은 1, 2순위가 집단 간 고르게 상위순위를 보였으나, 여성 이용자 집단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류시스템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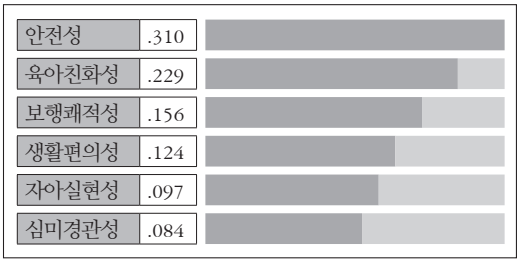
자아실현성에서는 집단 간 동일하게 단지 내 텃밭에 대한 선호를 보였으며, 여성 집단의 경우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심미경관성은 단지 내 공공미술에 대한 선호가 집단 간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여성 집단의 경우 풍부한 조경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으로 구성된 이용자 집단의 경우, 남성이 포함된 일반인 그룹, 전문가 그룹과 다르게 생활편의성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기록하였으며, 타 그룹에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자아실현성이 오히려 여성 이용자 집단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보여준 점이다.

5) 전체집단 계획요소 중요도 및 우선순위

집단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통합하여 전체집단으로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와 우선순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성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진 계획요소이며, 특히 단지 내 통제가 안전성요소에 가장 중요한 세부요소로서 전체계획요소 중 1순위에 해당하였다. 둘째, 육아친화성은 두 번째로 높은 가중치를 가진 계획요소이며, 탁아시설은 전체계획요소 중 2순위에 해당하였다. 셋째, 보행쾌적성은 세 번째로 높은 가중치를 가진 계획요소이며, 세부요소 중 녹색보행축은 전체 계획요소 중 6순위에 해당하였다.

그림 3 _ 전체집단 중요도 및 우선순위



넷째, 생활편의성은 네 번째로 높은 가중치를 가진 계획요소로서, 무엇보다 대용량의 주차공간은 전체 계획요소 중 10순위에 해당하였다. 다섯째, 자아실현성은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보였으며, 세부요소에 대한 고른 선호순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심미경관성은 가장 낮은 가중치를 보였으며, 세부요소 중 변화있는 단지 배치에 대해서는 최하위의 선호순위를 보여주었다.

IV. 결론

본 논문은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지구차원의 공동주택계획요소 도출과 계획요소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다.

이를 위해 탐색적 조사과정을 통하여 여성친화형 공동주택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추가적으로 여성으로 구성된 이용자 그룹과 남성이 포함된 일반인 그룹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계층분석기법을 실시하여 젠더를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이용자 그룹은 안전성과 육아친화

www.kci.go.kr

표 12 _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 결과(전체)

(전체집단 일관성 비율 = 0.01)

Level 1 대항목	Local 값	일관성 비율	Level 2 세부항목	Local 값		Global 값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안전성	.310	.01	단지 내 통제	.351	1	.109	1
			자연적 감시	.241	2	.075	3
			적절한 조명	.173	3	.054	4
			CCTV 설치	.155	4	.048	7
			주동출입시스템	.080	5	.025	15
육아친화성	.229	.01	공동 탁아시설	.336	1	.077	2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	.237	2	.054	5
			보육시설	.177	3	.041	7
			어린이 체험시설	.126	4	.029	12
			안전한 어린이공원	.124	5	.028	13
보행쾌적성	.156	.00	선형 녹색 보행축	.316	1	.049	6
			보행로 마감재	.216	2	.041	8
			대중교통 접근성	.127	3	.020	20
			Car-free 외부공간	.111	4	.017	22
			보차분리	.100	5	.016	23
			Sign system	.086	6	.013	28
생활편의성	.124	.01	대용량 주차공간	.309	1	.038	10
			에너지 절감형 단지	.240	2	.030	11
			단지 내 단축동선	.151	3	.019	21
			게스트 하우스	.124	4	.015	24
			쓰레기 분류시스템	.123	5	.015	25
			유비쿼터스 단지	.052	6	.006	32
자아실현성	.097	.01	단지 내 텃밭	.266	1	.026	14
			여성 배려 체육시설	.253	2	.025	16
			여성 커뮤니티 시설	.236	3	.025	17
			단지 내 고용시설	.159	4	.015	26
			로컬 스토어	.085	5	.008	30
심미경관성	.084	.00	단지 내 환경 미술품	.302	1	.025	18
			변화 있는 건축물	.273	2	.023	19
			다양한 스카이라인	.177	3	.015	27
			풍부한 조경	.153	4	.013	29
			변화 있는 단지 배치	.093	5	.008	31

성을 가장 높은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아실현성, 보행쾌적성, 심미경관성 그리고 생활편의성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남성이 포함된 일반인 그룹은 안전성과 육아친화성에서는 공히 높은 가중치를 보였고, 여성이용자 그룹과 달리 보행쾌적성을 높게 평가하고 자아실현성을 가장 낮은 중요도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안전성을 가장 높은 가중치로 평가하였고, 육아친화성

www.kci.go.kr

과 생활편의성을 비슷한 중요도로 평가하였다.

여성 이용자는 타 그룹과 유사하게 안전성과 육아친화성에서 기본적인 중요도를 나타냈으나, 자아실현성이라는 계획요소에 대한 중요도가 타 그룹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안전함과 육아로 한정된 여성친화성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수준의 여성친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의 성적역할에서 성평등성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과 성취를 원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룹 간 통합에 의한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는 안전성과 육아친화성을 근간으로 보행쾌적성, 생활편의성, 자아실현성 그리고 심미경관성의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집단 간 전체의사를 반영한 계획요소로서의 의미와 활용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여성친화도시의 정책개념을 지구차원에서 구체화를 시도했다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도시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탐색적 연구를 통해 계획요소를 추출해냈다는 점과 이를 집단 간 비교와 통합을 통해 계획요소의 도출 및 우선순위 도출이라는 구체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보다 폭넓은 조사범위의 확대와 추가적 연구를 통해 계획요소의 구체화 및 객관화 과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혜련. 2002. "성주류화 전략에서 본 지역 여성정책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엘림 · 김혜영. 2001. "남녀평등도시 모델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10-5.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김은주. 2010. "미혼 직장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행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지경. 2002. "차별경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7권 제1호. pp1-13.

김홍순. 2007. "비성별적 도시의 모색: 도시환경요소가 주는 잠재적 범죄위협에 대한 여성인식의 고찰". 국토계획 제42권 제1호. pp35-50.

마경희. 2003. "한국 사회정책 체제의 젠더계층화 논리와 여성의 사회권".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문미경 · 김혜영 · 최무현. 2006. "공공부문 여성참여확대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6-7.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박태원 · 문휘운 · 송향숙 · 한연오 · 유민태 · 형성철 · 정지인. 201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념모델 연구: 주택단지 및 근린범위를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방향연구(I). 경기 : 국토연구원. pp201-290.

박태원 · 천현숙. 2012.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도시계획구성요소". 국토 10월호. pp29-40.

서은영. 2009. "21세기 소비문화 '이브의 선택'에 달렸다". 서울경제. 4월 8일자.

손세관 · 김경순. 2000. "근대 주거건축에 여성고객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환경학연구 제11권 제2호. pp69-80.

송향숙 · 박태원. 2011. "여성정책과 공간이용 불평등에 관한 관계성 연구". 도시정책연구 제2권 제1호. pp53-65.

여성가족부. 2011. 201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서울 : 여성가족부.

유영주. 2006. "한국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변화: 문제와 전망". 여성 · 가족생활연구 제10집. pp51-75.

이은숙 · 정희선. 2003. "서울시 주부의 일상생활 공간의 불평등성". 지리학연구 제37권 제3호. pp241-255.

장미혜. 2009. 여성의 안전과 생활공간.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세훈. 2007. "주택소유의 관점에 입각한 중산층의 재해석". 경제와사회 제74호. pp199-226.

정갑희. 2005. "여자들의 공간과 자본: 지구화시대 한국사회의 여성적 빈곤과 공간적 대응". 한국여성학 제21권 제3호. pp5-37.

정희선 · 김문덕. 2009. "여성 관련 복합시설의 프로그램과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11권 제1호. pp198-203.

최병숙 · 박정아. 2009. "여성관련 공간을 중심으로 본 서울지역 아파트의 공간구조 변화".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0권 제4호. pp39-47.

Dodd, F. J., Donegan, H. A. and Mcmaster, T. B. M. 1993. "A Statistical Approach to Consistency in AHP". *Mathematical and Computer Modelling* vol.18, no.6. pp19-22.

www.kci.go.kr

Saaty, T. L. 1983. "Priority Setting in Complex Problems".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EM-30, no.3. pp140-155.

Susan, S. F. and Lisa, J. S. 2005. *Gender and Planning*. New Brunswick, U.S.A : Rutgers University Press.

여성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현황.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2013.1.11]

• 논문 접수일: 2013. 1. 14
• 심사 시작일: 2013. 1. 23
• 심사 완료일: 2013. 4. 14

www.kci.go.kr

Abstract

Planning Components and Priority of Women-Friendly Housing Complex

Keywords: Women-Friendly, Planning Components, Housing Complex, Factor Analysis,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study is conducted to setting up planning components of women-friendly housing complex by carrying out an exploratory survey on what women need in an apartment housing complex. Because, previous studies are macro-oriented discourse about the direction of the urban planning. In order to enhance feasibility of planning components, not only qualitative research but also quantitative research of factor analysis and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re used together. As a result, 32 sub-factors and 6 major factors are selected. According to importance, the 6 major factors are safety, childcare affinity, life convenience, pedestrian amenity, self feasibility and aesthetic landscape. Through that process, the planning components of women-friendly hosing complex was set up. This Criterion is expected to be used in planning housing-complex development in near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need to go along and consider the various types of co-housing and expanded samples.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주제어: 여성친화, 계획요소, 공동주택, 요인분석, 계층분석기법

본 논문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적 개념을 지구차원의 공동주택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요소와 우선순위 설정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거시적 담론을 위주로 한 도시계획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탐색적 조사연구를 거쳐 여성친화형 주거단지 계획요소를 추출하였고, 설문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요인을 계획요소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분석기법을 통해 집단 간 비교와 통합분석을 진행하였고, 계획요소의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32개의 하부 계획요인과 6개의 주요 요인이 선정되었다. 여성이용자 그룹과 일반인 그룹 및 전문가 그룹이 공통적으로 안전성과 육아친화성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기타 계획요소로서 보행쾌적성, 생활편의성, 심미경관성 그리고 자아실현성에 가중치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공동주택계획요소와 우선순위는 향후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다양한 유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연구대상을 확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www.kci.go.kr